

대하소설

해란강

2

리태수

새벽을 깨우는 종소리

연변인민출판사

대하소설

해란강

2

리태수

새벽을 깨우는
종소리

정민이미출판사

책임편집: 김봉용, 최문섭

책임교정: 김홍화, 최순란

图书在版编目 (C I P) 数据

海兰江. 2, 钟声: 朝鲜文 / 李泰洙著. - 延吉: 延边人民出版社, 2008. 1

ISBN 978-7-5449-0107-9

I. 海… II. 李… III. 长篇小说-中国-当代-朝鲜语
(中国少数民族语言) IV. I247.5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 (2008) 第004585号

海兰江(2) 钟声

出版: 延边人民出版社

(吉林省延吉市友谊路363号, <http://www.ybcbs.com>

<http://www.ybcps.com>)

印刷: 延边星月印刷有限公司

发行: 延边人民出版社

开本: 787×1092 1/16 插页:3 印张:19.5 字数:246千字

标准书号: ISBN 978-7-5449-0107-9 (民文)

版次: 2008年2月第1版

2008年2月第1次印刷

印数: 1000册

定价: 28.00元

如发现印装质量有问题, 影响阅读, 请与印刷厂联系调换。

차 례

산불	1
무함	20
궤계	42
슬픈 소식	60
종소리	86
모내기철의 풍파	107
“배워야 한다”	125
내막이 다른 호조조	145
애달픈 한숨	171
기로	187
얼룩소의 죽음	206
즐거운 가을	230
모래성	250
분분한 의론	271
새로운 단계	287

산 불

세월은 류수와 같이 빨리도 흘렀다. 겨우내 뽕뽕 얼어붙었던 해란강은 봄시위에 돌돌돌 구성진 노래소리를 찾고 그 소리에 강가 버들숲이 깜짝 놀란듯 눈을 띄우고있었다. 강언덕에서는 아이들이 들치근한 메를 캐느라 범석 고아대고 하늘에서는 종다리가 지지중 울어대고있었다. 새 희망이 봄씩처럼 움트는 화창한 봄날이었다.

김철산호조조는 조직되어 벌써 두번째 봄을 맞았다. 오늘 김준오는 모아산길녘의 하루같이 뽕직한 황무지를 일구고있었다. 호조조에서는 이 묵은땅을 개간하여 집채토지면적을 더 늘구자고 토의된것이였다.

점심때가 거의 되여왔다. 산비탈에서 아지랑이가 자글자글 끓고 못새들이 지절지절 우짚고있었다.

“이라, 이 소 올라섯!”

김준오는 더워나서 입고 온 덧저고리를 고개길에 벗어놓고 맨 적삼바람으로 가대기지탑을 잡았다. 지난겨울에 목재부업을 잤다 온 호조조의 얼룩소와 최승배네 등글소는 땀에 폭 땀서 가대기를 끌고 나갔다.

황무지를 한고랑한고랑 갈아나가는 김준오령감의 얼굴에는 그들먹이 웃음기가 실려있었다. 원래 말수 적은 준오령감은 남들처럼 다사하게 말할줄은 몰라도 속으로는 호조조일이 꽤 순리롭게 돼간다고 흐뭇하게 여기고있었다.

창길이가 자신있게 하던 말이 옳았다. 겨울사이 호조조는 진일보 확대되었다. 그 어간에 네호가 호조조에 자원해 들어와서 인젠 열다섯호로 되었다. 지난해 봄에는 소가 없어서 사람이 가대기를 끌고 봄갈이를 하여 개체호들의 비방과 조소를 들었으나 금년에는 소 두수가 붓고 또 얼룩소까지 더 갖추어놓아서 밭갈이도 제때에 하고 나아가서 황무지까지 일구는 판이었다.

그뿐이 아니었다. 호조조 간부들의 욕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금년내로 소 한마리와 달구지 여러채를 일구겠다고 철산이가 창길이서건, 박춘근서건, 허원섭서건 몇몇을 데리고 목재부업을 가서 수백원되는 돈을 만들어가지고 돌아왔다.

처음에는 보잘것없는것 같던 호조조가 한해사이에 등글 등글 살찌게 되었다. 촌장 태성민이 호조조를 마사야 한다고 호통치고 호조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철산이를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욕질할 때 같아서는 호조조라는게 그저 한해 빛이나 보고 말것 같았다. 그래서 김준오 자신도 철산이가 다시 호조조를 꾸리려고 나설 때 그만두라고 만류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철산의 감때가 하도 드세어서 호조조는 끝내 다시 꾸러지였다.

어디 그뿐인가. 지난해 가을에 호조조에서는 집집이 정 구량임무를 완성한외에 조원들이 자원으로 5천여근의 량식을 거두어 전방에 보내였고 그 일로 하여 구정부의 표양까지 받았다.

김준오의 눈앞에는 일제의 침략과 련속 들이닥친 흉년으로 조선농민들이 두만강을 건너 살길을 찾아 북간도로 밀려들어오던 정경들이 선히 떠올랐다. 하지만 뒤미처 북간도에도 일제놈들이 침략의 미수를 뻗치였고 토지소유권이 없이 소작살이를 할수밖에 없는 조선족농민들의 생활형편은 조선에서 살때보다 별반 나아진게 없었다. 오로지 중국공산당의 령도하에 왜놈과 국민당세력을 몰아내고 토지개혁의 시책하에 땅의 주인이 되어서야 조선족농민들의 운명에는 천지개혁의 변화가 일게 되었던것이다. 그래서 조선족농민들은 오로지 공산당과 모주석을 따르는 길만이 살길이라는것을 절감하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싸움에 용약 나서게 되었던것이다.

지난가을에 호조조 조원들인 박득룡, 최승배 같은 사람들이 호조조에 대한 의견이 태산같이 떠들썩할 때도 김준오는 또 자신이 없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철산이가 끈질기게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서 “표준공”이라는 새 방법을 만들어내고 조원들한테 차근차근 해설하더니 법석하던 의견들이 봄벌아래 눈처럼 오간데 없어지지 않았던가. 그래서 지금 와서는 김준오도 마음속에 호조조에 대한 든든한 신심이 들어앉게 되었다.

(그 녀석이 무슨 일이나 쇠소리나게 해제끼는걸 보문 여간내기가 아니거든. 무어든 한다고 들면 땅이 꺼져도 끄떡 안할 배심이란 말야!)

김준오는 조카에 대해 못내 탄복하였다. 그럴수록 준오령감은 기운이 나서 힘드는줄 모르고 일을 했다. 배가 출출

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익은 파리 같은 해가 중천에 떠있었다. 그는 갈던 이랑을 마저 끝내고 점심 먹으러 내려가려 하였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다. 담배 한대 피워물고 떠나려고 담배쌈지를 찾았는데 오간데 없었다. 아까 한숨 쉬면서 담배를 피우고 덧저고리우에 놓은게 분명 생각되는데 쌈지는 보이지 않았다. 덧저고리호주머니에 손을 질러보아도 없고 옷소매를 털어보아도 없었다.

머리를 동인 수건까지 풀어 헤쳐보아도 없었다.

“이거 과연 귀신이 곡할노릇이다...”

준오령감은 해괴해서 혼자 중얼거리며 근처 마른 풀섶을 살살이 훑어보았으나 노란색방수포쌈지는 나타나지 않았다.

“허 참, 별일을 다 보는군!”

김준오는 아쉽다는 생각에 이상하다는 그림자를 씌우며 할수없이 소들을 몰고 텔레텔레 고개길을 내려왔다. 어깨에 회색덧저고리를 걸친 그가 고개길에서 떨어져 당장 마을에 들어서는 때였다. 갑자기 동네안에서 웬 아낙네의 새뉘 소리가 들려왔다.

“불이야, 불이야—”

(어영? 불이라니. 뉘 집에 불이 났는가?)

준오령감은 화들짝 놀라서 소고뺨로 소등을 후려갈기며 허겁지겁 걸음을 재촉하였다. 그가 최봉춘네 앞길에 곧 들어서 설무렵 사방에서 떠따고으며 사람들이 쟁기며 물통을 들고 달려나왔다.

“아니, 불이 어데 났나? 영?”

맨앞에서 곤두박질하듯 뛰어나오는 창길이를 보고 준오령감이 황황해서 물었다.

“저기 산에... 저 내굴(연기)이 안보이우?”

창길이는 이렇게 급한 소리를 지르고는 번개같이 지나갔

다. 준오령감이 창길이가 가리키는데를 돌아다보니 자기가 금방 내려온 그 산에서 과연 난데없는 시꺼먼 연기가 타래치며 하늘로 치솟아오르고있었다.

“야 영호야, 네 이 소를 마을에 끌어가거라!”

철산이랑 한때의 사람들이 뛰어나오는 속에서 준오령감은 얼른 허원섭의 아들 영호를 발견하고 소리쳤다. 영호가 그한테로 달려오자 준오령감은 소고삐를 넘겨주고는 주먹을 쥐고 젊은이들의 뒤를 쫓았다. 먼저 현장에 당도한 사람들은 숨이 턱에 닿아 헐떡거리면서 애목들을 뿜아들고 불을 끄기 시작했다.

불은 준오령감이 생땅을 일구던 곳과 골짜기 하나를 사이두고 건너편 충충한 쑥밭에서 일어난 것이었다. 쑥밭에는 듅성듅성 잡관목이 서있었는데 쑥이나 나무가 바싹 마른 때여서 불은 화약처럼 활활 타올랐다. 자칫하면 더 큰불로 번져질 위험한 곳이었다. 쑥밭에서 멀지 않은 곳에 령을 덮은 이깔나무숲이 있는데 불길은 그쪽으로 우직부직 붙어들어가고있었다.

불과 사람과의 사정없는 대박투가 벌어졌다. 아비규환의 수라장이었다. 사람들은 이깔나무가지거나 가독나무를 꺾어 들고 확확 일어나는 불길을 내리쳤다. 매캐한 쑥연기에 줄기침이 나고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뜨거운 화기가 얼굴에 덮쳐들어 숨쉬기조차 가뻔다. 그런 속에서도 그들은 손을 멈출수 없었다. 불이 이깔숲에 달리게 되면 끌래야 끌수 없게 되기에 이 서슬이 단말마의 시각이었다.

바람과 불길은 쌍둥이처럼 붙어다녔다. 바람은 불길을 불어세우고 불길은 바람을 끌어왔다. 바람과 불은 한덩어리가 되어 나당굴며 무작정 닥치는대로 집어삼키는 파죽지세였다.

“더러 이쪽으로 오우. 이쪽이 더 급하우!”

이칼발을 막아선 철산이가 다급하게 소리쳤다. 그러자 팔뚝만치 거의 실한 가독나무가지들 든 창길이를 선두로 몇몇 사람들이 우르르 그리로 밀려가 불을 켜다. 뒤이어 저쪽에서 순희가 또 새된 소리를 질러서 사람들은 불이 펴 나게 그리로 달려갔다.

“에그… 저 생원이 옷에 불이 달렸구만은…!” 물레거우댁은 혼잡한 소리를 치며 달려가서 불이 달린 창길의 옷자락을 쥐여뜯었다.

“젠장, 불이나 끌게지 왜 이러우?”

창길이는 싱겁다는듯 버럭 소리를 지르며 물레거우댁을 와락 밀어제끼었다. 그리고는 시꺼먼 땅에 자빠져 디굴디굴 구울러 옷에 달린 불을 끄고는 벌떡 일어나 번개처럼 이쪽저쪽 뛰어다니며 불을 켜다.

이런 때 중촌마을 농민들이 허겁지겁 달려왔다. 인해전이였다. 사람들이 짹 나붙으니 기세 사납던 불길도 죽지를 꺾고 숙어들었다. 두 마을사람들이 한참 역사질해서야 불을 끌수 있었다. 몇군데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데까지 흙을 덮어 불씨를 말끔히 없앤 뒤에야 모두들 안도의 숨을 쉬었다.

“야, 위험하다. 하마트면 거저 쫓딱 할번했구만.”

“아닌게아니라 천만다행이요. 불이 이칼발에 달렸다면 어쩔번했소…”

“그런데 이 불이 대체 어떻게 났을가?”

“원, 그걸 누가 알겠소?”

“야, 어떻게 난 불이건 그나저나 켜이니 됐소!”

땀에 검댕이범벅이 된 사람들은 얼굴을 닦으며 다행이라고 너까렸다. 그런데 흠애비 병수가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질렀다.

“거, 무슨 말들입니까? 난데없는 불이 달릴리 있나요?”

난 이게 꼭 어떤 반동분자가 파괴를 하느라구 의식적으로 놓은 불이라구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디...”

“아니, 반동분자라니... 그게 누군지 병수가 알문 말하라구!”

촌장 태성민이 못마땅해하는 기색을 띠우고 버럭 역증을 내며 힐문했다.

“아, 지금 당장 짚어 말할수는 없어두 사캐를 해보면 알게 아납니까?”

“사캐를 어떻게 한단 말이요?”

“그거야 이 근방에 왔다간 사람들을 조사해내면 되겠지요. 난 그게 바쁜 일이 아니라구 생각합니다.”

김병수는 태성민의 턱밑에 다가들며 말하고는 여러 사람들을 향해 소리쳤다.

“가만, 저기 저 골채기 건너 밭을 오전에 번진것 같은데 대체 저 일을 누가 했습니까?”

김병수가 당장 누구를 붙잡아라도 낼듯 마을사람들을 둘러보는 바람에 사람들은 어리둥절해서 서로 건너다보았다.

김병수는 이른봄에 호조조에 들어왔다. 지난해 가을까지 만도 호조조에 대해 드러내놓고 별 험담을 다하던 그는 겨울이 지나자 태도가 일변되어 호조조에 들것을 적극 신청하였다. 그때 여러 집들이 호조조에 들려고 신청하였는데 그중에서도 김병수가 특별히 요구가 강렬하였다. 그래서 호조조에 든후 지금 림시 회계를 맡아하고있었다.

김병수가 오전에 생땡을 일군 사람이 나서라고 으름장을 놓는 바람에 김준오는 얼굴색이 새까매서 서있다가 얼먹은 소리로 대꾸했다.

“그 일은 하기는 내가 했네.”

“그런데 김령감은 불이 어떻게 되어 났는지 모른단 말입

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아나?”

“참, 이상한데요? 나무할 철이니 나무꾼들이 오겠는가. 밭이 없는데니 다른 밭갈이꾼들이 오겠는가? …여기 와 일한 사람은 김령감밖에 없는데 모른다구 딱 잡아떼니 아,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김병수는 이만 하면 모르겠냐는듯 입을 비쭉거렸다. 좀해서는 자기와 상관없는 일에 모르쇠를 놓던 병수가 오늘은 어째서 욱기를 쓰며 나서는지 모를 일이었다.

“여보, 그럼 불을 저 아저씨가 났다는 소리요?”

머리가 누렇게 그을고 옷이 너털너털 찢어진 창길이가 마뜩잖은 눈길로 김병수를 쏘아보며 껍 소리를 질렀다. 그는 김준오가 김병수의 말처럼 반동분자가 돼서 파괴하느라 불을 놓았다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서 김병수의 언동을 알뜰게 보고있었다. 그러자 김병수는 어깨를 으쓱하며 두팔을 벌려 보았다.

“글쎄 그거야 뉘기 알겠소?”

김병수는 연극배우처럼 얼굴에 괴상한 표정을 지어보이고는 태성민쪽으로 돌아섰다.

“촌장형님, 난 이속에 무슨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느 반동분자가 이갈밭을 태우자구 불을 놓았으면 꼭 붙잡아내여 영창에 넣어야지요. 난 이 내막을 잘 조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형님, 그렇지 않습니까?”

태성민은 이마살을 찌프리고 함구무언으로 있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떠올랐는지 사위를 둘러보았다.

“김철산동무!”

“왜 그러우?”

철산이는 병수의 말을 되새기며 심각한 표정으로 서있다

가 태성민을 건너다보았다.

“동무는 촌공안위원이니 오늘 이 일을 인차 구에다 반영하고 밀창이 드러날 때까지 되우 조사를 해보는게 좋겠소. 나쁜 놈의 파괴일수도 있단 말이지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우. 부주의로 난 불이 아니고 어느 놈이 파괴활동을 한게라문 기어이 파내야지요.”

철산이는 시허영게 그을은 눈섭을 모으며 고개를 끄덕이였다.

“됐소. 그럼 모두들 내려가지요.”

태성민이 움직이자 모두를 아래로 밀려내려갔다. 그러다가 얼마 가지 않아 앞에서 탈상탈상 걷던 태성민의 처 채채설이 고아대였다.

“아이, 이게 누구 담배쌈지요?... 여보... 여기 웬 담배쌈지가 있소!”

채채설은 골짜기옆에서 셋노란 쌈지를 얻어들고 큰 보물이나 발견한듯 떠들었다.

“가만있자... 이게 김령감의 담배쌈지가 아니요?”

담배쌈지를 이리저리 여겨보던 태성민은 눈살이 꺾꺾해서 김준오를 불렀다.

“아니, 그 담배쌈지가 어데서 났소?”

김준오는 가슴이 섬뜩해서 눈을 휘둥그렇게 떴다. 김준오가 쌈지를 받으려고 손을 내밀었으나 태성민은 팔을 뻗 당겨가며 주지 않았다.

“여기, 바루 여기서 얻어봤지요. 골채기옆, 바루 이 불이 붙은 지경옆에서 찾았다니까요. 바루 요기 요렇게 있지 않겠소? 저게 필경 무슨 곡절이 있는 담배쌈지라니까. 담배쌈지 안에 비지깨(성냥)까지 있단 말이지요!”

위낙 말새가 다사하고 참새에 굴레를 씌울 채채설이라

입귀에 미직미직 거품을 물고 수다를 떨었다. 의외로 나타난 담배쌈지에 사람들은 어리둥절했다. 더구나 당자인 김준오는 어마지두 아연실색하여 입을 반쯤 벌린채 얼없이 서있었다. 아까 소풍집 씻듯이 간간히 찾을 때 없던 쌈지가 어찌하여 자기가 한번도 넘어온 일이 없는 골짜기 이쪽편에서 나타나 는것인가? 담배쌈지에 다리가 생겼단 말인가, 아니면 나래가 돌쳤단 말인가? 이 판에 아무 덤터기든 쓰고말것 같아 김준 오는 겁이 더럭 났다. 그러지 않아도 워낙 김준오가 불을 놓 은게 아닌가고 떠따고오던 김병수는 담배쌈지가 나지자 펄떡 뛰며 손벽까지 쳐댔다.

“그렇지. 저걸 보지 못합니까? 어디 내 말이 틀립니까? 근거가 나왔습니다. 저쪽에서 일하던 령감이 골채기를 넘어 서 이쪽에 건너와 담배를 피울리는 없지 않습니까?... 김령 감, 말해보시우. 어찌해서 쌈지가 여기에 있는지요?”

“건 나두 모르겠네!”

김준오는 하도 어이없어 몇오리 남지 않은 턱수염을 부 르르 떨었다. 귀신이 곡할노릇이었다. 언변이 없고 마음이 약한 그는 눈앞이 새까매나서 모른다는 소리뿐이었다. 그러 자 득의양양해난 김병수는 그의 덜미를 잡고 송곳질이다.

“모르겠다구요? 아, 뻔한 일이 아닙니까? 담배쌈지는 여 기에 있구. 불은 여기서부터 달리구. 쌈지안에는 성냥이 있 구. 이 모퉁이에는 김령감밖에 온 사람이 없구... 자, 여러분 다 봤는데 거 뭐 늙은이가 그렇게 강떼질을 쓸게 있습니까!”

“애구, 늙은분이 왜 저리두 완고할가? 불을 났으면 났다 구 철저히 탄백을 할게지... 이게 어디 고집이나 떼질을 쓴 다구 될 일이요?”

서리맞은 가지처럼 주눅이 들어 발명조차 바로 못하는 김준오를 우습게 보며 채채설이 김병수와 맞장구를 쳤다. 대

부분 사람들이 김준오가 고의적으로 불을 놓을수 없고 설사 화전을 하다가 그랬기로 저렇게 잡아떨 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김병수와 채채설이 어찌도 사납게 달려드는지 서 빨리 나서지 못하고있었다. 개중 대바른 창길이가 불쑥 나서서 그들에게 쏘아붙였다.

“이보, 너무 그렇게 함부로 짚지를 마오. 혹시 담배를 피우다가 부주의로 불이 날수도 있지 않소?... 아저씨, 대체 그렇게 된 일이 아니우?”

창길이가 로골적으로 김준오를 두둔하며 물었다.

“아니, 난 이쪽에 넘어와서 담배를 피운적이라곤 없네.”

“그럼 아까 혹시 불끄러 오실 때 쌈지를 떨군게 아닌가요? 꼼꼼히 생각해보시우.”

허원섭이 혹 그럴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제발 그렇기를 바라서 관심조로 물었으나 김준오는 고집스레 머리를 가로저었다.

“아니, 난 오전에 일할 때 쌈지를 잃어버렸댔소. 바루 저 건너서...”

“아이구, 또 무슨 이런 활동사진을 놀아요? 이쪽에 건너 온 일이 없는데 담배쌈지는 여기서 나오구 또 무슨 생똥같이 담배쌈지를 잃어버렸다고요?... 그게 어디 귀구멍이 물둥이야 구리만한 사람이래두 곧이들을 소린가요? 동네 조무래기나 열릴 헛소리지...”

채채설이 또 코등이나 허비운듯 발각해서 김준오를 헐뜯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김병수가 그의 장단에 너털거렸다.

“과연 완고하기루... 늙은 령감이 거짓말에 이골이 텃군!”

한편에서 한창 이렇게 떠들썩할 때 김철산은 태성민한테로 다가가서 침착하게 제의했다.

“태촌장동무, 이렇게 없이 몇몇이 여기 남아서 토론하구

다른 사람들은 돌려보내는게 좋을것 같소.”

“아무래나 하지.”

태성민은 한참 궁리하다가 마지못해 동의했다.

“자, 그만들 하우. 이 문제는 우리 간부들이 토론을 하구 끝까지 조사를 해보겠으니 다른분들은 돌아가시우. 창길이는 가지 말구 남아라. 그리구 삼촌두 남으시우.”

철산의 말에 모두들 자리를 떴다. 김병수는 더 비치고싶었으나 그럴 처지가 아니므로 아쉬운 걸음을 땀고 채채설이도 그런 심정이었으나 창길이가 마뜩잖게 쏘아보고 게다가 태성민까지 “당신두 내려가오!”라고 호령해서 내키지 않은듯 뜨직뜨직 뒤편어져 내려갔다.

잠전에 담배쌈지를 얻어봤다는 자리에 네 사람이 모여앉았다. 철산이는 담배를 뺨금뺨금 빨며 한 생각에 잠겨있고 태성민은 해란강을 멀거니 내려다보며 자기와는 하등 관계가 없는듯한 기색이었다. 그는 지금 철산이가 먼저 입을 열기를 기다리고있었다. 의외의 곤경에 빠진 김준오는 풀이 죽어 고개를 떨구고 앉아있고 창길이는 타버린 옷셔를 툭툭 털고있었다. 긴장한 침묵이었다.

화염에 보금자리를 잃은 들새들이 반공중을 날아예며 우짖는 애처로운 울음소리와 바람에 가랑잎 설렁이는 메마른 소리가 침묵을 골짜기처럼 깊게 몰아가고있었다. 한참후에 철산이가 담배꽂초를 흙으로 덮으며 랭정한 표정으로 침묵을 깨뜨렸다.

“삼촌, 여긴 촌간부들만 남은 자리인데 오늘 생긴 일을 툭 털어놓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우.”

“무슨 말을 하라는가? 난 할 말이 없네.”

“왜 할 말이 없소? 불은 어찌 돼서 난계구, 쌈지일은 어떻게 된 일이요?... 만일 화전을 하려고 불을 났으면 났다구

까뻘히면 될게 아니우?”

철산이는 난생처음으로 삼촌한테 어성을 높이였다. 김준오는 철산의 역정에 불만스레 힐끗 건너다보더니 역시 외마디대답이었다.

“난 불을 안놓았네.”

“그럼, 삼촌 한분밖에 여기 와서 일한 사람이 없는데 불이 어찌하여 난게우?”

“그걸 내가 어떻게 아나?”

“그럼 담배쌈지일은 어떻게 된게우?”

“내 아까 똑똑히 말하지 않았나? 막섬 일을 끝내고 담배를 피우려구 쌈지를 찾으니 없더라구. 정말 귀신이 곡할 노릇이지…”

철산이가 숙질간의 인척도 모르고 신랄하게 문책하므로 준오령감은 고까운 생각이 들어 통명스러운 말투로 증을 내었다.

“내 삼촌에게 똑똑히 말해줘야 하겠소. 이렇게 딱 잡아땀다가 후에 탄로되면 숙질간이구 뭐구 나부터 아무 용서 없을줄 아오!”

철산이는 랭랭한 어조로 삼촌한테 기탄없이 경고하였다. 그 경고에 김준오는 도리어 어처구니 없다는듯 허구프게 웃었다.

“아, 글썸 자네들이 조사를 해서 밝혀만 내게! 그랬으면 나도 시원하겠네.… 죽을죄를 지었대두 했다면 했다가 해가지 내 언제 발뺌을 하거나 모르쇠를 대던가? 난 그럴줄 모르는 사람이네.”

어리숙하고 고지식한 준오령감은 이런 때에도 변명이 없이 자기를 믿고있었다. 이러루하면 삼촌의 진속을 알아차린 철산이는 태성민한테 머리를 돌렸다.